



보도시점 2025. 4. 29.(화) 17:30 배포 2025. 4. 29.(화) 17:30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입양동포 국내 정착지원은 국가의 책무”

- 29일 첫 정책간담회 축사서 밝혀...제도개선 및 맞춤형 정책 수립도 계획
- 관계기관·전문가·입양동포 등 70여명, 정책 방향·현장 지원방안 놓고 논의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29일 “2023년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르면 입양동포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재외동포에 속하고, 입양동포를 지원하고 정착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 라고 밝혔다.
 -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입양동포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재외동포청은 입양동포와 모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 또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안에 문을 연 ‘입양동포 전담창구’가 입양동포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 올해 재외동포청이 처음으로 마련한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해외입양인연대 등 정부 및 민간단체와 입양동포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 안준한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족찾기 사업을 소개했고, 김채영 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과장은 ‘입양동포 전담창구’ 운영 사례 및 입양동포를 위한 올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 또 도규리 서대문구 가족센터 팀장은 구청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사례를 발표했고, 해외입양인 김 올리버는 ‘입양동포 커뮤니티 교육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김연수 백석대 교수(좌장)와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관, 김향은 고신대 교수, 아만다 조 입양동포는 패널 토론에서 입양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경험과 제언 등을 공유했다.
- 한편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입양동포들이 언어, 문화, 주거, 취업 등 다양한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라고 지적하면서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정착지원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 고 의지를 표명했다.
- 또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공적 입양 체계를 구축하고, 입양 이후 지원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유재훈 해외입양인연대 고문(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민간의 실행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입양동포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제사회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 고 약속했다.
- 재외동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입양 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맞춤형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과	책임자	과장	김 채 영	032-585-3213
		담당자	주무관	변 승 우	032-585-3216

시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	개회 및 국민의례	
14:10 ~ 14:15	5'	개회사	재외동포청장
14:15 ~ 14:31	16'	축사	서대문구청장(이성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김상희) 해외입양인연대 고문(유재훈)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영상축사)
14:31 ~ 14:36	5'	기념촬영	
14:36 ~ 14:50	14'	Break time	
14:50 ~ 15:50	60'	【발 제】	
		① 가족찾기 사업 소개(10')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안준한)
		② 입양인 전담창구 사례 등 설명(10')	차세대동포과장(김채영)
		③ 지자체 다문화가족 국내 정착 지원(10')	서대문구청 가족센터 팀장(도규라)
		④ 입양인 교육 커뮤니티 센터(10')	해외입양인(Kim Oliver)
		⑤ Q & A(20')	참석자 전원
15:50 ~ 16:00	10'	Break time	
16:00~17:10	70'	【토 론】 입양인 국내 정착 지원 방안	
		① 좌장(5')	김연수 교수(백석대)
		② 전문가 3인 발표(45')	국회 정민정 조사관, 김향은 교수(고신대), Amanda Cho
		③ Q & A(20')	참석자 전원